

'예비신부' 한윤서 "이 결혼이 맞나...매일 밤 기도해"

등록 2026.05.12 08:38:47



[서울=뉴시스]'조선의 사랑꾼'(사진=TV조선 제공) 2026.05.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코미디언 한윤서가 우여곡절 끝에 예비 시어머니를 만났다.

11일 방송된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결혼을 앞둔 '41세 예비신부' 한윤서와 예비 시어머니의 만남이 이뤄졌다.

지난 방송에서 예비 시아버지는 한윤서가 천방지축이라며 시어머니와 만남이 취소된 이유를 암시했다.

만남 당일 메이크업을 받던 한윤서는 예비 시어머니가 시 낭독과 꽃을 좋아한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고 당황했다.

이후 한윤서는 "내가 며칠 전부터 어머님 뭐 좋아하는지 묻지 않았느냐"며 날이 선 모습으로 예비 신랑과 한참 설전을 벌였다.

급기야 그는 "이 결혼이 맞나, 매일 밤 기도한다"고 발언했고, 예비 신랑은 자리를 떴다.

우여곡절 끝에 마주한 예비 시어머니는 "핸드폰에 아들 이름을 '위대한 문준웅'이라고 저장했을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위대한 인물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키우고 있다. 윤서씨를 만난다고 해서 무조건 오케이라 생각했는데, 윤서씨가 술을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 됐다"며 솔직한 심정을 전했다.

하지만 한윤서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예비 신랑의 흥을 보는 실수를 저질렀다. 이에 예비 시어머니는 자리를 떴다. 황보라는 "시어머니에게 아들 흥보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경악했다.

다행히 한윤서는 진심이 담긴 손 편지로 다시 예비 시어머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딸 같은 며느리 둘 것이라 했는데, 귀여운 딸이 될 것 같다. 벌써 말려 들어간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_jh@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